

Stage 1.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낮선 방, 밤)

칠흑같이 어두운 밤, 불이 들어오지 않는 방 바닥에 한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으...으음."

깨어나려는 남성의 신음 소리는 어두운 방의 고요함을 깨는 데 충분했다. 이윽고 눈을 뜬 남성은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확인하려는 듯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여긴... 어디지? 나는... 왜 이런 곳에..."

잠시 생각에 빠지던 남성은 곧 생각을 포기한 듯 멍하니 창 밖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창 밖 하늘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이 빼곡하게 박혀 있었다.

"... 아름답다."

남성은 아름다운 바깥 풍경에 빠져 하염없이 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을 잊을 정도로 아름다운 하늘. 남성이 바라보는 별빛 하늘은 그렇게 표현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광!'

그 때,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분명 처음 눈을 떴을 때는 보이지 않던 문이었다.

"이 문은... 어디서 나타난 거지?"

문 주위는 어둠 속에서도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 말은 즉, 이 방 밖에 공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것을 깨달은 남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 앞으로 다가갔다.

"... 열리지 않는군. 어라, 이건?"

문은 굳게 잠겨 열리지 않았다. 남성은 힘이 빠졌지만, 곧바로 문에 걸려 있는 팻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이 방에서 나가시오.'

감정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은 무미건조한 문장.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남성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 방에서 나가야 한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생기를 잃은 듯했던 남성의 눈동자에 빛이 돌기 시작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방에서 나갈 수 있을까..."

남성은 방을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침대, 장롱...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방이었다.

"책상...은 어지럽네.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책들이 마구 흩어져 있어."

남성은 책상을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다음으로 남성의 눈길이 닿은 곳은 장롱이었다. 옷이 가득 담겨 있어 그런지 문이 잘 닫혀 있지 않았다.

“어디 보자... 어, 이건?”

장롱과 문 사이에 끈이 끼어 있었다. 남성은 끈을 잡아당겨 끈에 연결되어 있는 손전등을 장롱 속에서 꺼냈다.

“이래서 장롱 문이 닫히지 않았던 거군... 어디 불은 들어오나?”

낮은 손전등은 환하게 방을 비추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별빛이 닿는 곳만 보이던 방이었지만 손전등의 불빛으로 더 많은 곳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남아서 못 쓸 줄 알았는데... 다행인 걸”

남성은 손전등으로 방의 어두운 부분을 비쳤다. 그곳에는 어지러운 방의 분위기와는 상반되게 깔끔하게 정리된 침대가 있었다.

“잘 때만큼은 최선을 다 했나 보다... 여기만 유독 깔끔해”

남성은 침대를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침대 위에는 이 방의 주인처럼 보이는 어린 남자 아이의 사진이 담긴 액자가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어린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을 타고 있었다.

“말 타기를 좋아했나 보네...”

딸깍! 액자를 바라보고 있던 남성의 등 뒤에서 무언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성은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던 책상에서 나는 소리였다.

“저기엔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중얼거리는 남성이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책상 앞으로 향하고 있었다. 다시 책상을 살펴보니, 방금 전까지는 잠겨 있던 책상의 서랍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거 참... 이상한 일이군. 대체 여기는 어디이고, 나는 누구인 걸까...”

쓴 웃음을 지으며 남성은 책상의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열쇠가 들어 있었다.

“열쇠? 혹시 이건...”

남성은 곧바로 열쇠를 집어 든 뒤 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고리에 열쇠를 꽂고 돌리니 잠긴 문이 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달각. 굳게 닫혀 있던 문이 허무하다 싶을 만큼 쉽게 열렸다. 남성은 방을 나서기 전 방문에 걸린 팻말의 글귀를 다시 읊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좋아.”

각오를 다진 남성은 방문을 활짝 열고 낯선 방에서 빠져나왔다.

Stage 2. 이곳은 어디? (넓은 로비, 밤)

방문을 열고 나간 남성을 반긴 것은 커다란 로비였다. 최고급 호텔의 로비와 같은 공간에 들어선 남성은 멍하니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낯선 방을 빠져나왔다고 생각했더니 이건 또 뭐람...”

쿵! 고요한 로비의 분위기를 해치는 큰 소리가 남성의 뒤에서 울려 퍼졌다. 놀란 남성은 소리가 난 곳을 향해 뒤를 돌아보았다. 남성이 빠져나왔던 방의 문이 다시 굳게 닫혀 있었다.

“깜짝 놀랐네... 후, 정신 차려야지.”

남성은 다시 천천히 로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남성이 방금 빠져나온 방을 포함해 7개의 방 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방이 3개씩 있는 듯 보였다.

“왼쪽부터 101, 102, 103호... 내가 나온 방이 107호. 그리고 오른쪽이 104, 105, 106호인가? 이거 참. 어디부터 들어가야 할지...”

달칵! 고민하던 남성을 재촉하듯, 101호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하... 고민할 시간도 안 주는 건가...”

남성은 101호 방의 앞으로 걸어갔다. 방 문에는 역시 팻말이 걸려 있었다.

‘장난감의 방’

“장난감의 방...? 장난감이 있는 방인가?”

남성은 잠시 주저하다 문고리를 잡고 방문을 열었다. 남성의 입장을 환영하는 듯 101호의 방문은 활짝 열렸다.

#2. 장난감의 방 (밤)

추억의 향기

남성은 활짝 열린 104호 방의 문을 닫히지 않게 붙잡은 채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남성을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향기로운 방의 공기였다.

“좋은 향기...!”

방 안은 어린이의 것으로 보이는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다. 어린이용 책상과 의자, 그 옆은 높지 않은 선반. 선반 옆에는 커튼이 반쯤 쳐진 창문이 있었고, 창문 옆에는 작은 침대가 보였다.

“그리고 침대에는 사물함... 책상 옆에는 상자인가...”

남성은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찾아보며 손전등으로 방 안을 훑고 있었다. 남성의 말 대로 침대 옆에는 작은 사물함이 놓여 있었고, 책상 옆에는 장난감이 담긴 큰 상자와 작은 금고가 자리하고 있었다.

“상자 옆에는 금고... 흠... 그나저나... 이런 조그마한 방을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꾸밀 수 있다니...”

광!

방 안의 배치를 살펴보던 남성의 집중을 방해하는 큰 소리가 뒤에서 울려 퍼졌다. 놀란 남성은 곧장 뒤로 돌아 문을 바라보았다.

“이런...! 집중하느라 문 잡고 있는 걸 잊었네! 설마... 안 열리거나 하는건...?”

남성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돌렸다. 남성의 걱정과 달리 문은 활짝 열렸다.

“아니었군. 후우... 또 갇힌 줄 알고 걱정했네.”

‘철컹’

한숨 돌린 남성은 안심한 표정으로 방문을 닫고 다시 방 안 배치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뭔가 이상한데...?”

위화감을 느낀 남성은 선반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두 개의 층으로 나뉘진 선반의 1층에는 어린이용 사전과 비롯해 아이들이 읽을 법한 책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남성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선반의 2층에 놓인 7개의 동물 장난감이었다.

“장난감 상자는 저쪽에 있는데... 장난감은 선반에 놓여있다?”

남성은 선반에 놓인 장난감들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호랑이, 토끼, 양, 닭, 돼지, 원숭이, 개까지. 7마리의 동물이 왼쪽부터 순서대로 놓여 있었다.

“음...”

잠시 고민하던 남성은 장난감 상자 옆에 놓인 작은 금고로 다가갔다. 7개의 숫자를 입력해야 하는 금고. 남성은 망설임 없이 7개의 숫자를 입력했다. ‘철컹’. 금고가 열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방안을 채웠다.

“역시! 음? 이건 뭐지?”

금고 안에는 작은 쪽지와 커다란 배터리 한 개가 놓여 있었다. 남성은 금고 안에 놓은 쪽지를 들어 읽기 시작했다.

“탈출... 여기서 탈출하라는 소리인가? 아래 적힌 숫자는 또 뭐지...? 모르겠군.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다음으로 남성은 쪽지 옆에 놓여있던 배터리를 집어 들었다.

“커다란 배터리... 아!”

남성은 손에 든 손전등을 바라본 뒤 손전등의 배터리와 손에 든 배터리를 비교하기 시작했다. 두 배터리의 생김새는 일치했다.

“역시...! 손잡이의 배터리였구나. 그러고보니 손전등의 빛이 조금 어두워진 것 같은데... 배터리가 다 달기 전에 미리미리 갈아줘야겠네.”

남성은 흡족한 표정으로 104호 방문으로 다가갔다.

‘철컹 철컹’

분명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문을 닫았건만, 야속하게도 방문은 굳게 잠겨 열리지 않았다.

“제길, 이럴 줄 알았다! 어? 잠깐만...!”

남성은 낯선 방에서 가져왔던 열쇠를 주머니에서 꺼내 문고리에 꽂았다.

“제발...!”

‘달각, 끼이이이익’

남성의 간절한 말을 들은 듯 문은 시원하게 열렸다. 남성은 안도하는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104호 방을 빠져나갔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104호 방을 빠져나온 남성은 쓴웃음을 지었다.

“하하... 별거 아니구만...”

웃음도 잠시. 남성은 금세 심각한 표정으로 넓은 로비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어느 방으로 가야 할까...? 아까 것처럼 문이 스스로 열리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남성은 어두운 표정으로 로비의 문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101호, 102호 ... 106호. 낯선 방까지 모든 문을 열어보았지만 남성의 기대와 달리 문은 굳게 닫혀 열리지 않았다.

“이런 쟤장!”

남성은 절망감에 소리를 내질렀다. 잠시 가쁜 숨을 고르던 남성은 유일하게 열려 있던 104호 방으로 다시 들어갔다.

‘꽝!’

남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104호의 문은 거친 소리를 내며 닫혔다.

“깜짝이야... 대체 나한테 뭘 바라는거야...!”

남성은 화를 내며 작은 침대에 누웠다. 자연스럽게 남성의 시선은 침대 옆에 놓인 작은 사물함으로 향했다. 무엇인가 깨달은 듯, 남성은 벌떡 일어나 사물함을 향해 다가갔다.

“사물함... 이걸 아까는 왜 안 살피봤지?”

사물함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6자리 숫자로 잠긴 다이얼 형태의 자물쇠인 듯 보였다. 남성은 잠시 생각하다 주머니에 구겨 넣었던 쪽지를 꺼내 다시 살피보기 시작했다.

“뭔가 힌트가 될 만한 게 있을 텐데... 탈출... 로비의 방들... 아!”

‘드르륵, 드르륵, 탁!’

경쾌한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떨어지고 사물함이 열렸다. 사물함의 안 쪽에는 열쇠 한 개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남성은 기쁨에 떨리는 손으로 열쇠와 사진을 집어 들었다.

“행복해 보이네... 어머니와 아들의 사진인가...?”

사진 속에는 어린 남자아이와 아이의 어머니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해맑게 웃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남성은 아련한 표정으로 사진을 한참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 열쇠.”

사진을 바라보던 남성은 고개를 젓고 움켜진 열쇠를 바라보았다. 열쇠에는 '2'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일단 혹시 모르니 여기에서 발견한 건 다 챙겨 가야겠다.”

남성은 열쇠와 사진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닫힌 104호의 방문을 다시 한번 열었다. 방을 빠져나 오려던 그 때, 남성은 머리에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다.

“으윽... 으아아악!”

남성은 신음소리와 함께 머리를 감싸 쥐며 쓰러졌다.

호수공원 (과거 회상)

늦은 밤 한적한 길. 길 옆에는 황홀한 광경이 펼쳐진 호수가 있다. 이 곳은 호수공원인 듯 보인다. 공원 안 분수대 옆에 놓인 벤치에 남자아이와 그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인다.

“엄마! 왜 별은 밤에만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아들. 밤에만 별이 떠다니는 건 밤이 아름다워서 그런거란다. 하늘에서 별님이 우리 아들이랑 엄마 아프지 말라고 기도해주고 있는 거야.”

“피잉, 거짓말!”

“얘는, 정말이라니까?”

바라보는 것 만으로도 행복해지는 모습이었다. 아들의 이름은 흐릿하게 들려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것은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한참을 떠들던 아이와 여성은 의자에서 일어나 공원을 떠났다. 그들이 떠난 벤치 위에 수첩이 놓여 있었다. 남성은 수첩을 들어 읽어보기 시작했다.

‘2012년 3월 5일 오후 7시 46분. 사랑스러운 아들과의 잊지 못할 공원 산책! 아들을 보고 있으면 힘이 나고 우울한 기분도 싹 사라진다. 아들은 나에게 있어 별님과 같은 축복이다.’

아들에 대한 여성의 사랑이 느껴지는 글이었다. 글을 읽는 것만으로 사랑받는 기분이 전해지는 것 같았다. 남성은 갑자기 눈 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눈물...? 왜...?”

눈물이 흐르는 이유를 깨닫기도 전에 남성의 눈 앞이 깜깜해졌다.

기억의 조각 1

"으으윽..."

남성은 여전히 신음 소리를 내며 엎드려 있었다. 지끈거리는 머리를 감싸 쥐 채 남성은 주머니에 넣었던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다.

"그래... 이 아이와 여자... 방금 기억 속에 나왔던 사람들이야. 이 어린 아이가 나라면 이 여자는 ...? 으윽."

남성은 지끈거리는 머리를 겨우 진정시킨 뒤, 심호흡을 하며 천천히 일어났다. 로비에 있는 방을 하나씩 바라보며 열리기를 기다렸지만, 로비는 남성의 기대와 달리 고요한 적막이 이어졌다.

"잠깐... 아까 쪽지에 104호 방이 1이라고 적혀 있었잖아... 그렇다면 2는?"

남성은 빠른 걸음으로 103호 방문을 향해 다가갔다. 문 앞에는 104호 방문과 마찬가지로 팻말이 걸려 있었다.

'선물의 방'

"선물의 방...? 음..."

남성은 주머니에서 숫자 2가 적힌 열쇠를 꺼내 문고리에 꽂았다. 이번에도 방문이 활짝 열리며 남성을 환영했다.

'꽁'

동시에 104호 방의 문이 굳게 닫혔다.

"방 두 개는 한 번에 못 들어간다는거지...? 좋아, 가볼까?"

남성은 심호흡과 함께 103호 방 안으로 들어갔다.

S#3. 선물의 방 (밤)

꺼지지 않는 불씨

문을 열고 103호 방으로 들어선 남성은 방 안의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케이크...? 촛불이 켜져 있잖아?”

남성을 반긴 것은 식탁 위 촛불이 켜진 채로 놓여있는 케이크였다. 남성은 의아한 표정을 짓는 한편 주변을 경계했다.

“... 이 곳에 나만 있는 게 아니었나? 촛불이 어떻게...? 대체 누가?”

남성은 경계를 풀지 않은 채 방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생일 파티인 건가?”

남성의 말처럼 방은 생일 파티의 분위기를 내고 있었다. 방 문 옆에는 형형색색의 풍선이 떠 있었고, 4인용 식탁 위에는 커다란 케이크와 앞 접시 4개가 놓여있었다.

“그리고 식탁 앞에 냉장고... 그 옆에는 가스레인지랑 싱크대가 있군”

103호 방은 평범한 주방의 모습인 듯했다. 싱크대의 뒤로는 여닫이가 없는 2층의 수납장이 있고, 각 수납장에는 각각 과자와 전자레인지가 놓여 있었다.

“마지막으로 특이한 점이라면... 저 공룡이겠지.”

남성은 손에 든 손전등으로 방 구석에 놓인 큰 공룡을 가리키며 말했다. 손전등으로 방을 살펴 보던 남성은 우선 방에서 가장 눈에 띄는 케이크를 향해 걸어갔다.

“촛불에 불이 붙어있다... 초가 다 녹지 않은 걸 보면 불이 붙은 지 얼마 안 된 것일텐데.”

순간 남성의 눈 앞이 어두워졌다. 당황한 남성은 불이 꺼진 손전등의 스위치를 눌러보지만 손전등은 반응하지 않았다.

“이런... 배터리가 다 됐나? 다행히 촛불 덕분에 조금이라도 보이니 망정이지...”

남성은 촛불의 희미한 빛에 의지해 주머니에서 배터리를 꺼내 손전등의 배터리와 교체했다. 전보다 더 환한 빛이 남성의 앞을 밝혔다. 남성은 손전등을 케이크에 비추어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Happy 12th Birthday... 12번째 생일이었나 보네.”

파티 주인공의 12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문구가 올려져 있는 케이크는 딸기, 귤, 사과, 초콜릿 등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먹기 좋게 잘려 있는 케이크 옆에는 케이크용 칼이 놓여 있었다.

“어라... 이건?”

남성은 케이크 옆에 놓인 쪽지를 발견하고 손전등으로 비춰 읽기 시작했다.

“ㄱ, ㄴ, ㄷ, ㄹ... 그 아래에는 그림이랑 문장... 숫자? 무슨 의미지?”

한참동안 쪽지를 바라보던 남성은 머리가 아픈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과 함께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식탁 의자 구석에 놓인 작은 캐비닛이 남성의 눈에 들어왔다.

“혹시 이건가...?”

캐비닛은 0에서 9까지 4자리의 암호를 입력해야 열리는 듯했다. 남성은 쪽지와 캐비닛을 번갈아 보며 잠시 고민한 뒤 숫자를 입력했다.

‘빠리릭, 철컹’

캐비닛의 문이 활짝 열렸다. 남성은 기쁜 표정으로 캐비닛 안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캐비닛의 안쪽에는 작은 선물 상자처럼 보이는 것이 들어 있었다. 상자의 끈을 풀어보니 그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열쇠 한 개 그리고 배터리 한 개가 들어있었다.

“상자가 왜 이렇게 무거운가 했더니... 이 배터리 때문이었구나.”

실망한 듯 멧쩍은 웃음을 지은 남성은 상자에서 나온 사진을 손전등으로 비춰 보았다. 아까 전 사진에 나왔던 남자 아이가 고깔모자를 쓴 채 초를 불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내 추측이 맞다면 이 남자아이는 나일거야... 그럼 이 사진은 12살이 된 나의 생일 파티... 사진 인건가?”

남성은 사진을 보며 중얼거린 뒤 손에 쥔 열쇠를 바라보았다. 열쇠에는 숫자 3이 적혀 있었다. 남성은 상자에서 발견한 물건들을 주머니에 넣은 뒤 103호의 문을 향해 걸어갔다. 이번에도 문은 활짝 열렸다.

“으...으아아아아악!! 크흠...”

103호에서 나온 남성은 또 다시 머리를 감싼 채 주저 앉았다.

생일 파티 (과거 회상)

“생일 축하합니다~ 와아아”

어두운 방은 케이크 위 촛불만이 가득 채우고 있었다. 케이크 옆에 놓인 달력에는 10월 26일에 커다란 하트가 그려진 것이 보였다.

‘사랑하는 아들의 12번째 생일’

케이크 앞에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 아이가 고깔모자를 쓴 채 가족으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었다. 남자 아이는 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초를 불었다.

“자 여기 보고~ 치즈!”

아이의 아버지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초를 부는 아이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다. 촛불은 다 꺼지는가 싶었지만, 3개의 초에서 다시 불꽃이 피어올랐다. 젊은 남성을 그 모습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들! 뭐 갖고 싶은 건 없어?”

아이의 눈이 잠시 반짝거렸지만, 이내 수줍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없어요. 오늘 축하받은 걸로 만족할게요...!”

아이의 말을 들은 남성은 잠시 멍쩍은 표정을 지은 뒤 과장된 웃음을 지으며 아이에게 다가갔다.

“우리 아들 철 들었네? 갖고 싶은 게 없다니! 흠... 그럼 이거 아쉽겠는걸? 아빠가 아들 주려고 선물을 준비했는데 말이야!”

아이의 눈이 다시 별빛처럼 반짝거리기 시작했다.

“뭐...뭔데요? 주는 거라면 갖고 싶어요!”

젊은 남성은 웃으며 뒤에 감추어 두었던 물건을 꺼내 보였다.

“짜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공룡이야. 어때 아들, 공룡 멋있지!”

“우와아아아! 아빠 사랑해요! 헤헤헤”

아이는 남성의 품에 날아가듯 안겨 들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젊은 여성이 둘만의 시간을 방해하듯 끼어들며 말했다.

“아들? 엄마도 선물을 준비했는데... 궁금하지 않니?”

아이가 대답하려 다가가자 젊은 여성은 입술을 아이의 볼에 갖다 댔다. 남자아이는 부끄러운 듯 얼굴이 빨개졌다.

“자, 선물!”

그 옆에서 또 다른 인물이 남자 아이에게 축하의 한 마디를 건넸다. 교복을 입은 여자 아이... 남자 아이의 누나인 듯 보였다. 누나가 주는 커다란 막대사탕을 본 남자아이는 행복한 듯 미소를 지었다. 누가 보더라도 행복해 보이는 가정의 풍경. 웃음소리가 멀어지며 시야가 점차 흐려졌다.

기억의 조각 2

남성은 여전히 머리를 감싼 채 신음을 내뱉고 있었다.

“아... 아앗... 이... 이건 12살 때의 내... 기억...인가?”

비틀거리며 일어난 남성은 머리를 한 손으로 움켜쥔 채 숫자 3이 써진 열쇠를 주머니에서 꺼내 로비 중앙으로 걸어갔다.

“3... 3번이면 여기가 맞나... 음”

두통이 가시지 않은 듯 비틀거리던 남성은 101호 문으로 다가가며 건너편의 106호 방의 문을 바라보았다. 잠시 망설이던 남성은 잠시 심호흡을 한 뒤 101호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101호 방 문에도 이전과 똑같이 팻말이 걸려 있었다.

‘컴퓨터의 방’

“컴퓨터의 방...? 컴퓨터가 있는 방이라는 건가? 하아...”

남성은 한숨을 쉬며 숫자 3이 적힌 열쇠를 101호 방 손잡이에 꽂아 넣었다. 딸깍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101호의 문이 활짝 열렸다.

‘철컹’

동시에 103호의 문은 굳게 닫혔다.

S#4. 컴퓨터의 방 (아침)

새어 나오는 빛

“으윽...! 이... 이게 어떻게 된거지...!”

방문을 열자 새어 나오는 빛에 남성은 눈을 크게 뜨며 놀랐다. 이전까지의 방과 다르게 방의 모습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을 정도의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손전등 없이도 방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

남성은 손전등의 스위치를 눌러 불을 끈 뒤 블라인드 커튼이 쳐진 방의 구석으로 향했다. 등성 등성 틈이 난 커튼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음... 역시 안 움직이네.”

남성은 커튼의 줄을 당겨보았지만, 줄만 따라올 뿐 커튼은 움직이지 않았다. 커튼을 손으로도 잡아당겨 보았지만 단단하게 고정된 커튼은 움직일 김새를 보이지 않았다.

“뭐가 이렇게 단단한거야... 거 참”

커튼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좌, 우가 따로 설치된 듯 보였다. 결국, 빈 틈으로 햇빛이 들어온다는 것 외에 남성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흠... 그래도 햇빛이 들어와서 그런지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 기분인걸.”

남성은 편해진 표정으로 101호의 방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커튼의 앞에는 여러 종류의 책이 빼곡하게 담긴 커다란 선반이 놓여 있었다. 선반 앞에는 고등학생이 쓸 것 같은 책상과 의자, 그 위에는 컴퓨터의 모니터가 올려져 있었다. 책상 구석에는 작은 수납장도 보였다.

“...음 장롱이랑 교복. 그리고 이번에는 정리가 안 된 침대인가? 아마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생각해보면... 이 방은 내 고등학교 시절의 방이겠지? 이거 참 기억이 온전하지 않으니... 원”

남성은 중얼거리며 장롱에 걸린 교복을 살펴보았다. 교복의 이름표는 지워져 형태를 알아볼 수 없었다.

“그래... 여기까지 와서도 이름은 알려줄 수 없다 이 말이지? 젠장...”

가볍게 욕을 뱉는 남성의 뒤로 기계음이 들렸다. 화들짝 놀란 남성은 뒤를 돌아 소리가 난 곳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전원이 켜져 있는 모니터에 무언가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암호를 입력하라...? 뭐지?”

남성은 일단 아무 숫자나 입력해보았지만 역시나 컴퓨터의 화면은 넘어가지 않았다. 그때, 숫자

를 입력하는 칸 아래로 하나의 문장이 더 채워졌다.

‘힌트: 빛이 들어오는 곳...’

힌트를 확인한 남성은 햇빛이 들어오는 커튼을 향해 걸어갔다. 커튼에서 무언가 발견한 남성은 희미한 웃음과 함께 컴퓨터의 앞으로 돌아와 키보드의 번호를 입력했다.

“창문과 커튼... 답은 이거겠지.”

띠링! 하는 소리와 함께 잠금 화면에서 바탕화면으로 모니터의 화면이 전환됐다. 바탕화면에는 다시 한 문장이 띄워져 있었다.

‘내 PC -> 사진 -> Screenshot -> 왼쪽 상단에서부터 3번째 파일에 나오는 그림들의 정답을 푸시오’

“음... 어렵네. 이름이랑 숫자를 같이 적어야 하는건가?”

모니터에 써진 대로 마우스를 움직여 사진을 확인한 남성은 난해한 문제 앞에 잠시 생각을 정리했다. 이내 고민을 마친 남성은 책상 밑 작은 수납장으로 다가가 정답을 입력했다. 철컹하는 소리와 함께 수납장이 열렸다. 수납장에는 숫자 4가 적힌 열쇠와 수험표라는 글씨가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다.

“음? 이걸... 수험표? 일단 챙겨둘까.”

남성은 수험표를 잠시 바라보다 열쇠와 수험표를 주머니에 넣은 뒤 방문으로 걸어갔다. 문고리를 잡은 남성은 크게 심호흡을 하기 시작했다.

“분명... 이번에도 두통이랑 함께 기억이 흘러 들어올거야... 마음의 준비를 하자.”

각오를 다진 남성은 101호 방의 문을 열었다. 예상대로 찾아온 강력한 통증에 남성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해방의 날 (과거 회상)

“야 이성민!”

선선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던 소년의 뒤로 누군가가 다가왔다. 소년을 친하게 대하는 것을 보아 친구인 것 같았다.

“오 김수호 일찍 왔네~? 니가 웬일로 지각을 안 했냐?”

수호라는 이름의 친구는 소년의 어깨를 치며 말한다.

“야 섭섭하게 무슨 소리냐. 내가 언제 약속 시간을 안 지켰다고.”

“에휴, 됐다. 야 빨리 PC방이나 가자.”

체념한 듯 한숨을 쉬며 걸어가는 소년의 뒤로 수호라는 이름의 친구가 뛰어오며 말했다.

“에이 그래, 저번에 내가 늦었으니까 오늘은 음료수 쏘다!”

“오~ 니가 웬일이냐? 그 짱돌이가?”

히히덕거리며 두 명이 PC방으로 향하던 그 때, 소년의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느껴졌다. 휴대폰을 꺼내 열어보니 어머니라는 글자가 보였다.

“여보세요? 아, 네 어머니. 저 오늘 주말이기도 해서 모처럼 기분 전환하려고 놀러 나왔어요. 혹시 저녁 먹고 들어갈 것 같으면 미리 연락 드릴게요. 네...네... 이따 집에서 뵙요.”

“야, 뭐하냐? 이러다 PC방 자리 뺏기겠다. 요즘 자리 구하기 힘든 거 알잖아?”

전화를 받느라 걸음이 느려진 소년을 재촉하는 수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소년은 한숨을 쉰 뒤 뛰어가며 말했다.

“알겠어 임마, 거 재촉 좀 그만해라 씨...”

PC방에 도착한 둘은 가게를 둘러보다 겨우 남은 두 자리를 찾아 앉았다. 17번과 18번 자리. 두 소년은 옆에 앉아 헤드셋을 낀 채 한참을 웃고 떠들며 게임을 즐기기 시작했다. 둘의 웃음소리를 뒤로한 채 시야가 다시금 흐려지기 시작했다.

기억의 조각 3

남성은 눈에서 흐르는 물을 닦아내며 일어났다. 쓰러질 것을 예상한 덕분인지 전보다 후유증은 덜한 듯했다. 크게 심호흡을 한 뒤 남성은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성민... 이성민... 그래 내 이름은 이성민. 기억났어. 그리고 내 친구 김찬호.”

성민은 주머니에서 손전등을 꺼내 어두운 로비를 밝혔다. 건너편에 있는 106호 방의 문이 보였다.

“방금 내가 나온 방이 3번 열쇠로 열렸으니까... 다음 4번 방은 저기겠지.”

확신에 가득찬 표정으로 성민은 106호 방문 앞으로 걸어갔다. 106호 방문에도 역시나 팻말이 걸려 있었다.

‘책의 방’

“책의 방...? 아...!”

성민은 주머니에서 수험표를 꺼내 들었다. 잠시 수험표를 바라본 뒤 곱게 접어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4번 열쇠를 문고리에 넣어 문을 열었다. 철컹. 이번에도 문은 성민을 환영하듯 활짝 열렸다. 동시에 101호의 문은 굳게 닫혔다.

S#5. 책의 방 (아침)

고요한 도서관

성민은 106호 방에 들어서자마자 예상했다는 듯 씨익 웃었다.

“역시... 그런건가?”

101호의 방처럼 햇빛이 커튼의 틈을 통해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성민은 손전등의 전원을 끄고 주머니에서 수험표를 꺼내 들었다. 수험표를 보니 성민의 고등학교 시절 사진 외에 다른 부분은 모두 지워져 있었다.

“그러니까... 이 지워진 부분들을 이 방에서 채우면 되는거겠지?”

성민은 자신 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린 뒤 방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창문 쪽에는 일렬로 긴 책상이 있고, 그 아래에 의자들이 일정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책상 너머에는 책이 가득 담긴 책장이 왼쪽에 2개 오른쪽에 3개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민은 주변을 확인한 뒤 창문으로 다가갔다.

“음... 여기는 아까 방보다 커튼이 더 촘촘하네...?”

성민의 말대로 커튼의 틈은 101호의 방보다 더 좁았다. 이를 보여주듯 방의 밝기도 101호보다는 덜했지만, 그래도 손전등 없이 주변을 볼 수는 있었다.

“이야... 누가 정리 한건지 책상이랑 의자에 먼지가 하나도 없는데? 엄청 깔끔하고...”

성민은 방을 돌아다니며 배치된 가구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잠시 고민하던 성민은 왼쪽에 배치된 책장 쪽으로 걸어갔다. 왼쪽 책장은 4층 구조로, 두꺼운 두께의 책들이 빼곡하게 선반을 채우고 있었다.

“으음... 책의 이름도 내용도 아무것도 없어... 도움이 안 되는구만...”

성민은 책장에서 책을 몇 개 꺼내 읽어보았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정확하게는 지워진 듯 보였다. 허탈해진 성민은 오른쪽 책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오른쪽 책장의 책들 역시 내용이 모두 지워져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책이 많은데 읽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니... 이건 예상하지 못했는데? 골치 아프구만...”

체념하려던 그 때, 성민은 마지막 선반에서 책이 아닌 무언가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지퍼로 된 수첩이었다.

“이건... 역시 암호가 걸려있구나. 오히려 암호가 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놓이는 건 참... 뭐라고 해야 할까, 묘한 기분인걸.”

암호는 한글 자음을 맞춰야 하는 것처럼 보였다. 성민은 방금 전 살펴보았던 방의 모습을 생각 하더니 이내 정답을 떠올린 듯 미소를 지어 보였다.

‘끼리릭, 철컹’

성민은 수첩을 열어 내용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앞서 보았던 책과 마찬가지로 안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실망한 표정으로 수첩을 내려놓으려던 순간 책갈피의 끈이 걸려 있는 곳이 눈에 띄어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래! 여기까지 와서 아무것도 없을 리가 없지...! 어디 보자... 이건 그림인가...?”

그림이 그려진 부분을 읽던 성민은 페이지를 넘겼다. 그림의 다음 장에는 단서가 될 만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책상을 유심히 살펴 보시오.’

성민은 곧바로 일어나 책상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일렬로 놓여 있는 것처럼 보였던 책상 끝에, 유일하게 떨어져 책상인 척하고 있는 수납장이 눈에 보였다. 잠겨 있는 수납장은 8자리의 숫자를 맞춰야 열릴 듯했다.

“이걸 왜 아까는 못 봤을까... 나도 참.”

성민은 번호키에 숫자를 맞춰 넣었다. 띠리링!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수납장이 열렸다. 수납장 안에는 숫자 5가 적힌 열쇠와 쪽지가 들어 있었다. 성민은 쪽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뭘 고생했다는거지? 음... 방 분위기도 그렇고... 나한테 하는 말이겠지?”

성민은 지금까지 그랬듯 새로 얻은 열쇠와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잠시 방 안을 바라보던 성민은 짧은 한숨을 내뿜은 뒤 106호 방 문 앞에 섰다.

“후... 이제 익숙해질 만도 한데, 그 고통은 영 익숙해지기 힘들단 말이지... 가볼까?”

짧게 다짐한 뒤 성민은 106호 방의 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두통이 성민의 머리를 가득 채웠다. 이제는 고통에 익숙해진 듯 성민은 부르르 떨며 선 채로 버티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의식이 흐려지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과거 회상)

어느 화창한 낮의 교실. 그 안에는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공간을 채우고 있다. 멍하니 정면만 바라보는 학생, 손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학생, 다리를 심하게 떠는 학생 등등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긴장감을 표출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다가올 시험의 중압감을 보여주는 듯 했다.

‘13110217 이성민’

성민이 앉은 자리에는 그곳이 성민의 자리임을 알려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성민은 불안한 듯, 눈을 감고 다리를 떨기 시작했다.

“후.... 하아.... 잘 봐야 하는데... 긴장하지 말자... 파이팅...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알라신....”

성민은 불안감을 날려보내려는 듯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성민이 아는 신의 이름이 다 떨어질까 때쯤 교실의 긴장감을 깨는 말이 들렸다.

“자, 시험 시작합니다. 책상 위에 지정된 필기구 제외하고 다 집어넣으세요.”

감독관으로 보이는 남성의 말에 학생들은 보던 책을 집어넣었다. 이내 시험지가 모든 학생들에게 나눠지고 학생들은 손을 바쁘게 움직이며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그렇게 1교시... 2교시가 끝나고 가져온 도시락을 먹는 성민. 밥맛이 없는지 깨작거리며 영어 단어장을 보고 있다.

“실수하지 말자... 파이팅... 할 수 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어느새 해가 질 무렵, 성민 또한 가방을 챙겨 교실을 나서기 시작했다. 성민은 지금까지 느낀 적 없는 후련함을 느낀 표정으로 학교를 나섰다.

“드디어 끝났다...! 으으 오늘 저녁은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해야겠다~”

기빠하는 성민의 목소리가 멀어지며 시야가 흐려진다.

기억의 조각 4

성민은 중심을 잃어 넘어지려는 것을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로비의 벽을 잡은 성민의 팔은 부르르 떨리고 있었다.

“하하... 이건 수능 때의 기억인가?”

성민은 주머니에서 손전등과 숫자 5가 적힌 열쇠를 꺼냈다. 움직임에 더 이상 망설임은 없는 듯 보였다. 성민은 바로 옆 105호 방 손잡이에 5번 열쇠를 꽂았다. 달각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한 뒤 성민은 방문의 팻말을 바라보았다.

‘면접의 방’

“.....”

성민은 무언가 짐작가는 것이 있는 듯 생각에 빠졌다. 이내 기대 반, 걱정 반의 오묘한 표정과 함께 방문을 열고 105호 방의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번에도 106호의 방문은 굳게 닫혔다.

S#6. 면접의 방 (낮)

화창한 날의 사무실

105호에 들어선 성민은 방이 전보다 더 밝아진 것을 느꼈다. 손전등 없이도 방의 모습이 환하게 보였기에 성민은 손전등을 주머니에 넣고 방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긴 책상 옆에 놓은 화이트 보드. 그리고 책상 앞에 조금 큰 사이즈의 창문과 블라인드 커튼이 눈에 띄었다.

“음... 그리고 저쪽 구석에 잠긴 수납장이랑... 그 위에 커피 포트인가.”

성민은 책상으로 다가갔다. 책상 위에는 수첩과 서류 봉투, 이력서 등 잡다한 물건이 올려져 있었다. 성민은 이력서라고 쓰여 있는 종이를 들어 자세히 살펴보았다. 옛된 청년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이성민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외의 부분은 지워져 있었다.

“이건... 면접 봤을 때의 내 모습이구나. 지금이랑 비교하면 엄청 어리네... 하하...”

쓴웃음을 지은 성민은 고개를 돌려 화이트 보드를 살펴보았다. 화이트 보드에는 무언가 적혀 있었다. 성민은 화이트 보드 앞으로 다가갔다.

“아까는 이런 게 없지 않았나...? 뭐 생각보단 어렵지 않네”

성민은 화이트 보드의 문제를 읽은 뒤 곧바로 커피포트가 놓인 수납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수납장의 암호를 풀어냈다. 이번에도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수납장이 열렸다. 안에는 숫자 6이 적힌 열쇠와 배터리가 들어 있었다.

“음... 그래 배터리. 마침 배터리 여유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잘 됐네.”

열쇠와 배터리를 주머니에 넣은 성민은 105호 방문을 열어 밖으로 나갔다. 이번에도 두통이 올 것이라 예상한 성민이었지만 아무런 고통이 없자 오히려 당황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얏...!어라? 왜 아무런 고통이...?”

성민은 의구심을 품은 채로 마지막 102호 방문으로 향했다.

